

“트레비스, 너마저”

5회 못 버티고 강판... KIA, 가을잔치 비상

삼성에 2-6 역전패



외국인 투수 콤비의 어께에 KIA의 가을잔치가 달렸다. KIA 타이거즈는 로페즈(10승)와 트레비스(7승) 두 외국인 투수로 막강한 선발진을 구축하며 전반기를 1위로 마무리했다. 2위 삼성 라이온즈와는 두 경기차까지 앞선 1위였다.

하지만 후반기 두 외국인 투수가 흔들리면서 KIA의 순위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KIA가 후반기 18경기를 소화했지만 두 선수는 18과3분의1이닝을 소화하는데 그쳐며 단 1승도 챙기지 못했다.

삼성을 상대로 한 후반기 3연전, 트레비스가 첫 선발로 나섰다. 7과3분의2이닝 2실점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투수교체카드 실패로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계속된 마운드 압박자로 6월 29일 이후 승을 챙기지 못했던 트레비스는 지난 2일 두산전에서 5회도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이날 마운드에서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했던 트레비스는 컨디션 난조로 선발로테이션까지 거르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14일 삼성전 선발로 재출격했지만 역시 5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고, 팀은 2-6으로 패했다.

트레비스의 후반기 세 번째 등판 성적은 4과3분의2이닝 동안 7피안타(1홈런) 4사구 4탈삼진 4실점. 탈삼진 두개를 뽑아내는 등 1회를 삼자범퇴로 출발했지만 뜰속날낀 한 제구로 2회 볼넷 두 개와 폭투로 1점을 내줬다.

트레비스는 5회 체태인을 몸에 맞는 볼로 내주고 강판을 당했다.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1루주자 체태인과 말싸움까지 벌여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윤석민과 다승왕 집안 싸움을 벌였던 로페즈도 10승에서 멈춰 있다. 7월 17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열구리 통증을 호소했던 로페즈는 7월 20일 넥센과의 후반기 첫 경기에서 2이닝 뒤 모습을 감췄다. 열구리 통증이 재발하면서 로페즈는 다음날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전반기 KIA의 순위 싸움 전면에 나섰다 두 외국인 투수의 부진과 부상으로 투수로테이션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순위싸움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나마 재활군에 머물러 왔던 로페즈가 14일 첫 실전과



‘와일드’ 트레비스 KIA 투수 트레비스가 14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5회말 체태인을 몸에 맞는 볼로 내보낸 뒤 빈볼시비에 휘말려 동료들에게 이끌려 강판되고 있다. /연합뉴스

침에 나섰다. KIA에게 위안거리다. 로페즈는 이날 잠진베이스볼 파크에서 열린 넥센과의 2군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2과3분의2이닝 동안 3피안타 1볼넷 2실점(1자책점)을 기록했다. 총 43개의 공을 던진 로페즈의 최고 구속은 144km였다.

한편 2군에 합류한 내야수 김선빈은 12일에 이어 14일 1번 타자겸 유격수로 출전해 2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유럽축구 코리안리거들 시원한 ‘골 맛’



손흥민, 그림같은 첫골

독일 프로축구 함부르크의 손흥민이 13일(현지시간) 함부르크의 노르트방크 아레나에서 열린 헤르타 베를린과의 홈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16분 자신의 시즌 1호골이자 역전골을 터트린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성용, 2게임 연속 골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셀틱의 기성용이 13일(현지시간) 글래스고 셀틱파크에서 열린 던디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2-1로 앞선 13분 시즌 2호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동원, 희망 쓴 데뷔전

역대 한국인 최연소 프리미어리그 지동원(선덜랜드)이 13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 앤필드 경기장에서 열린 2011-2012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제이미 캐러거(리버풀)의 수비에 맞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배구 쿠바·폴란드 제압 신나는 2연승

2011 그랑프리 선수권

한국 여자 배구가 쿠바에 이어 폴란드도 제압하고 신나는 2연승을 달성했다.

김형실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4일(한국시간) 새벽 폴란드 지엘로나구라에서 끝난 2011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 예선 2주차 E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공격 특점으로 만 24점을 내리 꽂은 ‘거포’ 김연경(터키 페네르바체)의 스파이크를 앞세워 세계랭킹 7위 폴란드를 3-0(25-21, 34-32, 25-23)으로 격파했다.

전날 쿠바를 9년 만에 물리친 한국은 이날 폴란드도 5년 만에 제압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역대 폴란드와

의 상대 전적에서는 4승9패로 열세다. 2연승을 달린 한국은 승점 5점으로 E조 1위를 질주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트스코어 3-0, 3-1로 이기면 승점 3점을, 3-2로 이기면 2점을 준다.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예선 1주차 조별리그에서 한국은 독일을 물리쳤으나 일본과 브라질에 패해 1승2패로 추종했다.

그러나 폴란드 원정에서 2연승을 내달리며 전체 성적에서 3승2패를 거둬 결선리그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세계 16개 팀은 3주간 조를 바꿔가며 경기를 치른다. 이어 예선 성적 상위 7개 팀과 결선리그 개최국인 중국 등 8팀이 24일부터 마카오에서 결선리그를 벌여 유

승팀을 결정한다.

이날 한국은 블로킹(5-6)과 서브(4-7) 득점에서 열세였으나 김연경이 고비마다 해결사로 맹타를 터뜨려 공격의 중심을 잡았다. 이어 왼손 공격수 황연주(현대건설·14점)와 한송이(GS칼텍스·7점)가 김연경의 뒤를 받치면서 무려 4명이나 두자릿수 득점을 올린 폴란드를 따돌렸다.

한국은 1세트 20-20에서 김연경의 오픈 공격과 김세영(KGC 인삼공사)의 가로막기로 두 점을 보태며 승기를 잡았다. 일진일퇴 공방전이 벌어진 2세트에서는 32-32에서 한송이의 블로킹 득점에 이어 상대 공격 범실로 진판나는 승리를 거뒀다.

/연합뉴스

박지성 83억 사나이

2013년까지 재계약... 맨유 선수 중 3번째

한국인 1호 프리미어리거인 박지성(30)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통산 세 번째 재계약에 성공, 오는 2013년 6월까지 뛰게 됨에 따라 맨유의 ‘핵심 선수’로 인정을 받았다. 맨유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박지성이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며 ‘최소 2012-2013시즌 마지막까지 박지성을 올드 트래퍼드에서 볼 수 있게 됐다’고 공

개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박지성은 맨유에서만 무려 8년 동안 뛸 수 있게 됐다. 맨유는 박지성과의 재계약을 알리면서 관례에 따라 구체적인 연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박지성의 아버지 박성중 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선



재계약하면서 주급도 7만 파운드(약 1억2천만원)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외신들도 박지성의 주급을 9만 파운드(약 1억6천만원) 수준으로 예상해 연봉도 470만 파운드

(약 83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박지성은 최고 연봉자인 루니(연봉 140억원)와 퍼디난드(연봉 100억원·이상 추정치)에 이어 최근 주급 9만 파운드에 재계약한 것으로 알려진 파트리시 에브라와 함께 팀 내 최상위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연합뉴스

무등빌딩 임대층 내역 (분할가능)

- 지하 2층 397평
- 지상 2층 332평
- 3층 369평
- 10층 331평

무등빌딩에서 시작하십시오!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주차시설이 완비 · 중앙 공급식 냉 · 난방시설 쾌적한 업무환경!

면적 332평/2층
 희망업종 금융·증권
 (즉시입주, 전액보증금가능)

임대문의 062) 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